

구소련 시대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학교에 관한 연구*

- 1937년 이전을 중심으로 자료와 답사를 통하여 -

이 영 심(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 조 재 순(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이 상 해(성균관대학교 교수)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18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전통 풍속을 지키고 살아왔으며 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이전에 연해주에 설립하였던 학교에 관하여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해주의 고려인 학교에 관한 기록의 발굴과 함께 앞으로 그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본 주제와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고 현지답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주 초기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의 한인 이주민들에 대하여 동화 정책을 사용했으며 이에선교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교 설립과 교육은 선교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는 교회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2. 1800년대 말-1900년대 초기에 연해주에 세워진 학교는 대부분 판자(fanza: 중국어로 집이란 뜻; 흙, 짚, 풀 등으로 만들었음)건축물이었다. 초가집도 있었는데 바닥이 불을 데우는 형식이었던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 학교에 온돌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1900년대 이후의 한인이주는 항일 운동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주적인 민족교육을 자각하면서 고려인에 의한 한인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자료와 답사를 통하여 볼 때 1900년대 이후의 학교 건축에는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한일합방 이후 한인들의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제적인 지원은 더욱 활발해져서 개인 주택을 교사(校舍)로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교는 10 여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고 교실과 창문은 보잘 것 없었으며 벽은 때로 무너져서 수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5. 현지답사를 행한 연해주 지역의 한인학교는 푸칠로프카 육성농업학교와 코르사코프카 학교였다. 푸칠로프카 육성농업학교는 현재 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나 강당 등의 교사(校舍) 일부는 노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르사코프카 학교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교사는 한 동으로서 내부를 개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초기 정착지이며 항일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한 연해주 지역의 한인학교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6. 연해주의 한인학교는 1907년-19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혹은 사진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학교

* 본 연구는 2005년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는 고려인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발굴되고 보존되어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 학교 관련 기록의 발굴 및 심층적인 현장답사가 요구된다. 학교의 계획 및 재료와 설비 등에 관한 심층 연구는 역사적인 기록의 보존 뿐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접목되는 부분까지 탐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